

目連經의 成立經緯

金 聖 洙*

〈目 次〉

- | | |
|------------------|----------------|
| I. 序 言 | IV. 目連經 成立의 淵源 |
| II. 目連經의 現出 및 流布 | V. 敦煌變文과 目連經 |
| III. 目連經의 構造 | VI. 結 論 |

I. 序 言

불다(Buddha, 佛陀)의 十大弟子 중 神通第一인 目連尊자가 餓鬼道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救하였다는 目連救母의 說話는 古來로부터 東洋三國에서 有名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目連救母의 說話가 韓國에 流入되어 「佛說大目連經」이라는 經典으로 成立되고, 또 韓國 佛敎徒社會에서 가장 많이 普及되고 傳播되었다. 이 目連經은 일찌기 包光先生께서 「韓國의 僞經」이라고 指摘한 바가 있었고, 또 閔泳珪博士께서 目連經과 敦煌의 變文은 그 內容上 一脈相通한다는 主張이 있었다. ⁽¹⁾

위와 같은 主張에 좇아서 筆者는 目連經이 韓國의 僞經으로 成立되는데 있어서 敦煌變文 등 餘他的 諸經論이 影響을 끼쳤으리라는 假說을 評定하여, 目連傳記 및 孟蘭盆經 그리고 敦煌出士의 目連變文을 目連經과 比較한다. 그 결과 이들이 目連經의 成立에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를 分析함으로써 「佛說大目連經」의 成立經緯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1) 閔泳珪, “目連經과 敦煌變文,” 「史學會誌」 第一輯 (서울: 延世大學校史學會, 1963), p. 2 參考.

II. 目連經의 現出 및 流布

本章에서는 文獻上에 나타난 目連經에 대한 記錄에 치중하여 이 經의 刊行 및 流布 事實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韓國에서 文獻上 目連經에 관한 사실이 最初로 보이는 時期는 12世紀初의 일이라 생각한다. 즉 高麗 睿宗은 同王元年(1106) 7月 癸卯에 長齡殿에서 孟蘭盆齋를 設하여 肅宗의 冥福을 빌고, 다음 날인 甲辰에 또 名僧을 불러 目連經을 講經하게 하였다⁽²⁾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 記錄에 보이는 目連經이 오늘날 널리 流布되고 있는 그것과 같은 內容의 것일 수 밖에 없음을 疑心할 餘地가 없다.⁽³⁾

이러한 記錄으로 보면, 目連經은 韓國에서 12世紀初에 이미 대궐에서 講經할 정도로 流布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韓國에서 目連經의 成立은 늦어도 11世紀末로 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高麗朝의 文獻에서 유독 이 目連經단을 指摘하여 講義하였다는 記錄은 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毅宗 7年 7月 및 忠烈王 11年 7月과 同王 22年 7월에 왕이 손수 孟蘭盆齋를 베풀었다⁽⁴⁾는 記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當時 佛敎가 國敎였고 또 이 孟蘭盆齋와의 관계로 인하여 各 寺刹이나 一般民衆에서도 目連經이 어느정도 刊行되고 流布되었으리라 推斷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朝鮮朝에 있어서 目連經의 刊行 또는 書寫된 現存本 目連經을 조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2) 高麗史卷12, 世家 12, 睿宗元年 7月條, 「癸卯設孟蘭盆齋于長齡殿以薦肅宗冥祐」 「甲辰又召名僧講目連經」
- (3) 岩木裕, 「目連經と孟蘭盆」(東京:法藏館, 1968), p.135 參照.
史在東, 「佛敎界 國文小説의 形成過程 研究」(서울:亞細亞文化社, 1977), p.43에서 再引用
- (4) 高麗史卷18, 世家 18, 毅宗 7年 7月條 「壬寅設孟蘭盆齋於奉元殿」
高麗史卷30, 世家 30, 忠烈王 11年 7月條 「癸未幸神孝寺設孟蘭盆齋」
高麗史卷31, 世家 31, 忠烈王 22年 7月條 「辛己壬寅與公主幸廣明寺設孟蘭盆齋」
東國大學校釋林會編, 「高麗史佛敎鈔存」, (서울:東國大學校釋林會, ()), pp.51-90 參考.

- ① 1447年 世宗丁卯 初成其韓譯, 1559年 明宗己未 4月, 淳昌地龜山無量崛刊本「月印釋譜 第23」殘卷中 孟蘭盆經·佛說大目連經部(延世大藏)
- ② 1536年 嘉靖15年丙申 12月, 逍遙山烟起寺刊本(서울대·高麗大藏)
- ③ 1546年 嘉靖25年丙午 5月, 咸鏡道安邊悟道山釋山寺刊本(國立圖藏)
- ④ 1584年 萬曆12年甲申 3月, 全羅道金堤興福寺刊本(國立圖·東國大·서울大藏)
- ⑤ 1654年 孝宗5年甲午 6月, 清道九龍山水岩寺留板(南涯藏)
- ⑥ 1735年 雍正13年乙卯 4月, 平安道妙香山普賢寺刊本(國立圖藏)
- ⑦ 1841年 道光21年辛丑 書寫于金剛正陽精舍(寫本)(서울大藏)
- ⑧ 1862年 同治元年壬戌 春, 金剛山乾鳳寺刊本(國立圖·東國大藏)
- ⑨ 1867年 同治6年丁卯 5月, 舍利閣僧世樞(刊本)(서울大藏)
- ⑩ 1922年 世尊應化2949年壬戌 8月, 三角山地藏庵刊本(東國大藏)
- ⑪ 1924年 世尊應化2951年甲子 8月, (刊本)(서울大藏)
- ⑫ 年代未詳 寫本 1冊(國立圖藏)
- ⑬ 年代未詳 韓譯刊本 各 1冊(國立圖·서울大藏)⁽⁵⁾

以上の 記錄을 통해서, 目連經이 朝鮮時代에 있어서도 全時代에 걸쳐 全國적으로 刊行·流布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目連經의 여러 刊本中에서 연구의 편의상 貴重本으로 指定된 1584年 興福寺刊本(奎章閣 所藏本)을 基準으로 하여 本研究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5) ①: 國立中央圖書館編, 「古書目錄」(서울: 국립도서관, 1970), 第一卷 p.92, 94, 第3卷 p.968, 第五卷 p.24.

②: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編, 「古書目錄」(서울: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1981), p.218.

③: 서울大學校 文理科學 附設東亞文化研究所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 東亞文化研究所, 1965), p.8116.

④: 閔泳珪, “元高麗俗禮僧,” 「東方學志」第31輯(서울: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2), p.2의 附註參考.

⑤: 尹炳泰, 「韓國書誌年表」(서울: KAL, 1972), pp.49--141 參考.

⑥: 鄭亨應,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總覽」(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179.

(㉗에 ③④⑥⑧⑫⑬이, ㉘에 ④⑧⑩이, ㉙에 ②④⑦⑨⑫⑬이, ㉚에 ①⑤가, ㉛에 ②③④⑤⑥⑩이 各 取錄되어 있음.)

4 도서관학논집

이밖에 위와 같은 目連經에 대한 各版本에 관한 形態書誌的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餘地도 없지 않다.

Ⅲ. 目連經의 構造

本章에서는 먼저 目連經의 構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目連經 構造에 있어서의 形式的 特徵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먼저 目連經의 構造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아홉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王舍城의 長者, 傅相의 아들로 羅卜이 登場한다.
- ② 羅卜이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3年間 侍墓를 마친 다음에, 遺産을 어머니인 青提夫人과 나누어 가지고 舍地國으로 장사를 떠난다.
- ③ 青提夫人이 모든 惡行을 恣行하는 동안에, 羅卜은 장사에 성공하고 돌아와 어머니를 만난다.
- ④ 青提夫人이 罪報로 인하여 急死하니 羅卜이 侍墓를 마치고 出家한다.
- ⑤ 羅卜이 佛弟子 중에서 神通力이 第一가는 目連尊자가 된다.
- ⑥ 目連이 그 어머니를 찾아 八大地獄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만나지 못한다.
- ⑦ 目連이 마지막 阿鼻地獄에서 어머니를 相逢하고 悲痛하여 울부짖는다.
- ⑧ 目連이 如來의 法力을 빌어, 어머니를 阿鼻地獄으로부터 단계를 밟아 올라 小黑閻地獄, 餓鬼界, 王舍城의 개(畜生) 등으로 還生시킨다.
- ⑨ 目連이 盂蘭盆齋를 베풀고, 그 어머니로 하여금 如來께 五百戒를 받게 하여 忉利天宮에 나아가 快樂을 누리게 한다.⁽⁶⁾

위와 같은 目連經의 構造에 있어서의 그 形式的인 特徵을 들면 다음과 같다.

(6) 史在東, 「佛敎界 國文小說의 形成過程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44 參考.

一般的으로 佛經은 그 構造形式이 序分 正宗分 流通分の 3단으로 形成되어 있다⁽⁷⁾고 說明하고 있다. 이제 이 佛經의 構成形式에 目連經의 構造를 代入시켜 보고자 한다.

첫째, 經典의 첫머리에 「如是我聞」이하 그 經을 說한 때와 장소 및 대상 등 一切의 事情을 서술한 부분, 다시 말하여 그 經을 發起한 理由와 因緣 즉 緣起의 部分을 叙述한 序分⁽⁸⁾이 本 目連經에서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둘째, 釋尊의 說法 등을 叙述한 經典의 本體인 正宗分은 위에서 서술한 目連經의 構造 全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經文의 마지막에 그 說法을 들은 大衆의 감격이라든가 戒발의 정도 그리고 장래에 이 經을 읽는 사람의 이익이나 功德 또는 그 經의 이름 등을 記錄한 부분인 流通分은 目連經에서 經의 끝부분에

若有善男子善女人 爲父母書寫此經 受持讀誦 分得三世父母七代先亡 即得往生淨土 俱時解脫 衣食自然長命富貴 佛說此經時 天龍八部人非人等皆大歡喜 信受奉行作禮而去⁽⁹⁾

라 하여, 거의 完全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目連經은 正宗分에 등장하는 主人公 등의 내역인물을 소개하고, 무대장치 등을 표현하는 부분인 序分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을 뿐 나머지 형식은 거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中國의 佛敎學者들은 序分の 記述如何에 의해서 그 經典의 思想이라든가 內容의 深淺 등을 表示하는 것이라 하여 매우 重要視하고 있다.⁽¹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目連經에서 이러한 序分の 構成要素를 완전히 생략되어 經典이 成立된 것을 보면, 이 經典이 中國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韓國에서 成立되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7) 이것은 中國에서 經典을 實證學的으로 研究한 最初의 學者인 東晉의 道安(314~385)이 말한 것인데, 이 3단법은 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후의 학자들은 經典의 構成과 組織을 論할 때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다.

(8) 佛經의 첫머리에 「如是我聞」一時 佛在某方某處 爲諸四衆 而說經」 등으로 記錄됨.

(9) 目連經 (1584年 興福寺刊本, 서울大藏), 第24葉.

(10) 李戴昌, 「佛敎經典概說」現代佛敎新書 46 (서울: 東國大學校佛典刊行委員會, 1982), pp. 35-36.

은 目連經이 韓國의 僞經이라는 事實을 뒷받침하여 주는 하나의 좋은 例가 된다고 볼 수 있다.⁽¹¹⁾ 게다가 이 「佛說大目連經」이라는 題目的 經典이 일찌기 大藏經 大部帙이나 그 歷代失傳目錄에서도 記錄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이 目連經이 中國이나 日本에서 일찌기 문제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¹²⁾ 目連經은 韓國에서 成立되고 流通된 「韓國의 僞經」이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Ⅳ. 目連經 成立의 淵源

1. 目連의 傳記

目連尊者的 傳記에 대해서는 初期經典에 속하는 阿舍部(增阿舍, 雜阿舍, 中阿舍經 等)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本節에서는 이 阿舍部和 大智度論 및 佛本行集經 觀佛三昧海經 등에서 간추려서 目連의 傳記를 서술하고자 한다.

目連尊者是 古代 中印度 마가다(magadha)國의 수도 王舍城 근방의 拘利伽村에서 婆羅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릴 때의 이름은 羅卜으로, 一名 柯利陀(kolito; 拘律陀)라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따왔다. 出家 後에는 어머니의 姓을 따서 붙인 이름이 目犍連(目連)⁽¹³⁾이라 하였다.⁽¹⁴⁾

그는 어릴 때부터 舍利弗와 가까이 지냈었다. 어느 날 羅卜은 王舍城 부근의 靈鷲山 정상에 어떤 대회에 참여하였다가 大衆이 무질서하게 노는 꼴을 보고 世上의 無常을 느껴 出家하였다고 한다. 처음은 六師外道 중에서 婆離闍婆의 산자야(刪闍耶)의 弟子가 되었다. 그는 入門한지 7日만에

(11) 간록 中國의 僞經에서는 그 佛典이 僞經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序分과 流通分을 광범하게 서술하고 있는 經典이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는 本經典의 성립배경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言及은 省略하고자 한다.

(12) 閻泳珪, “目連經과 敦煌變文,” p. 2 參考.

(13) 이외에 目犍羅夜那, 目加略子, 沒特伽羅子, 毛駄伽羅子라 칭하기도 한다.

(14) 龍樹造, 大智度論 第11, 「大正藏經」 第25卷, No. 1509 (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昭和 3 [1928]) 參照.

산사야학과의 敎理를 通達하여 敎學에 精通하였다 한다.

目連은 舍利佛과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解說者를 먼저 만나면 서로 알려주기로 하고 修行精進에 힘쓰고 있었다. 舍利佛이 拈다의 弟子 중의 한 사람인 阿說示로부터 諸法無常의 思想을 듣고 佛法을 알아 깨달은 뒤에, 두 사람의 회하사문 200명을 거느리고 竹林精舍로 가서 拈다의 弟子가 되었다.

그리하여 拈다의 弟子가 된 目連은 修行 중의 어느 날, 冥想 중에 즐다가 拈다로부터 경교를 받았다 한다. 그때부터 자지않는 法을 익혀, 그 結果 神通力을 얻어서 舍利佛과 함께 拈다의 으뜸가는 弟子가 된다.

佛本行集經 第48과 大智度論 第40에는, 舍利佛을 拈다의 右側의 弟子, 目連은 左側의 弟子로 표현하고 있다.⁽¹⁵⁾ 또한 增一阿含經, 雜阿含經 中阿含經 等에서는 目連尊者를 神足第一이라 호칭하고 있다.⁽¹⁶⁾ 이 외에 觀佛三昧海經에서는, 目連尊자가 金翅鳥로 變身하여 毒龍을 제도하는 대목이 나타난다.⁽¹⁷⁾

위와 같은 目連의 傳記와 目連經의 構造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目連의 傳記에서,

- ① 그의 어릴 때의 이름이 羅卜이었다는 점
- ② 出家 後에 그의 어머니의 姓을 따서 目連이라 칭한 점
- ③ 王舍城 근방에서 태어난 사실

등이 目連經의 첫머리 부분에 나타나는 사실과 一致한다.

둘째, 그의 傳記에서 目連이 拈다의 神足第一의 弟子로서 神通力을 지녔다는 점이, 目連經에서는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救하기 위하여 現世와 三十三天 그리고 여러 地獄을 두루 드나들 수 있게 하는 神通力의 根據가 되고

(15) 佛本行集經, 第48, 「大正藏經」第3卷, No. 190 參照.
 註 14)의 第40卷 參考.
 (16) 增一阿含經, 「大正藏經」第2卷, No. 125 參照.
 雜阿含經, 「大正藏經」第2卷, No. 99 參照.
 中阿含經, 「大正藏經」第2卷, No. 26 參照.
 (17) 佛說觀佛三昧海經, 「大正藏經」第15卷, No. 643, pp. 645-696 參照.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發見할 수 있다. 즉, 먼저 目連經의 導入部가 目連의 傳記를 充實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增一阿含經 등에서 神足第一이라는 目連尊者를 登場시킴으로써, 지극한 孝誠으로 阿鼻地獄에서 苦痛받고 있는 어머니를 教化하여 천도시킬 수 있는 神通力の 根據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事實을 考慮해 본다면, 目連經 成立의 着想은 바로 目連尊者의 神通力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目連經에서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救하기 위하여 神通力을 부려 地獄을 두루 돌아다니는 부분이 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目連經이 하나의 經典으로 成立된 淵源은 目連의 傳記에서 着想・胎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孟蘭盆經

序言에서 言及한 目連救母의 說話는 西晉 竺法護 譯인 孟蘭盆經⁽¹⁸⁾과 唐代 流布인 淨土孟蘭盆經⁽¹⁹⁾에서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있다. 孟蘭盆經은 梁武帝의 佛教興隆과 더불어 脚光을 받아서 南北朝에 크게 流行하고 六朝末期에는 이 經典의 所說에 의하여 7月 15日에 孟蘭盆齋가 年中行事로 行하여지게 되어 조상을 섬기고 돌아가신 父母님께 祭祀를 올리는 佛教儀禮로서 社會的인 佛教倫理가 되었다.⁽²⁰⁾ 그리하여 이 孟蘭盆經의 核心主題가 되는 目連救母의 說話도 이 經과 더불어 南北朝・隋・唐에 걸쳐 널리 유행하였다고 짐작된다. 본절에서는 目連救母 說話의 根源인 孟蘭盆經이 目連經 成立의 淵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調査해 보고자 한다.

먼저, 孟蘭盆經의 轉譯事實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佛說孟蘭盆經, 「大正藏經」第16卷, No. 685, p. 779.

(19) 智昇撰, 開元釋教錄 卷第18, 「大正藏經」第55卷, No. 2154, pp. 671—672.

(20) 「林通事隱解」奎章閣叢書 第8 (京城: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昭和 18 [1943]), pp. 274—276 參考.

6世紀 前半의 인물인 梁의 僧祐가 撰한 「出三藏記集」 下卷 第4의 新集經撰失譯雜錄 第1에 孟蘭盆經이 收錄되어 있다.⁽²¹⁾ 즉 이 目錄에 의하면 梁時代에 새로 모은 譯者不明의 雜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 隋의 沙門인 法經 등이 撰한 「衆經目錄」에서도 孟蘭盆經은 譯者不明의 經典으로 收錄되어 있다.⁽²²⁾ 그 後 7世紀 初인 唐 智昇의 「開元釋教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經의 轉譯者가 西晉의 竺法護라고 밝히고 있다.⁽²³⁾ 그리하여 이 開元錄에 依據하여 欽定大藏經이 刊行된 바 孟蘭盆經은 正經으로 認定받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淨土孟蘭盆經은 唐 道宣의 「大唐內典錄」 卷第7 中 孟蘭盆經의 註記事項에서 ‘又別本五紙云 淨土孟蘭盆經 未知所出’⁽²⁴⁾이라 하였고, 또 明詮의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14 中 孟蘭盆經의 註記事項에서 역시 똑같은 註를 記入하고 있다.⁽²⁵⁾ 그리고 「開元釋教錄」에서도 ‘淨土孟蘭盆經’의 註에서

右一經 新舊之錄皆未會載 時俗傳行將爲正典 胞辱文句亦涉人情 事須審詳且附疑錄⁽²⁶⁾

이라 하여, 正經으로 認定치 않았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正經으로 인정된 孟蘭盆經만을 比較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번째로, 孟蘭盆經과 目連經의 句文을 比較하여 보면⁽²⁷⁾ 다음과 같다.

(1) 孟蘭盆經(이하 ㉠으로 표시)에서는 죽은 目連의 어머니가 餓鬼道에 태어나 있는 반면, 目連經(이하 ㉡으로 표시)에서는 阿鼻地獄⁽²⁸⁾에 떨어져 있다.

(21) 僧祐 撰, 出三藏記集, 「大正藏經」 第55卷, No. 2145, p. 28.

(22) 法經 等撰, 衆經目錄 卷第3, 「大正藏經」 第55卷, No. 2145, p. 133.

(23) 智昇 撰, 開元釋教錄 卷第2, 「大正藏經」 第55卷, No. 2145, p. 494, 496 參照.

(24) 道宣 撰, 大唐內典錄 卷第7, 「大正藏經」 第55卷, No. 2149, p. 298.

(25) 明詮 撰,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14, 「大正藏經」 第55卷, No. 2153, p. 469.

(26) 註 19) 參照.

(27) 比較의 정확을 위하여 우란분경은 大正藏本(註 18 參照)을 本으로 삼았음.

(28) 이것은 俱舍論에서 묘사되는 八大地獄 중의 여덟번째 지옥으로, 극악무도한 罪行을 저지르면 어김없이 떨어지는 곳으로, 地下四萬由旬이나 되는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 위에 나머지 七大地獄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함. 또 이 地獄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 하여 無間地獄이라고도 한다.

㉞ : 即以道眼 觀視世間 見其亡母生餓鬼中⁽²⁹⁾

㉟ : 今往獄中 檢簿無名 前頭又有阿鼻地獄⁽³⁰⁾

여기에서 目連 어머니의 所在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란분경에서는 六道 중에서 두번째로 나쁜 餓鬼道에 속하여 있으나, 목련경에서는 六道의 最下位인 地獄 중에서도 가장 苦痛스러운 無間地獄 즉 阿鼻地獄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목련의 어머니는 우란분경에서보다 목련경에서 더욱 困境에 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救하는 문제에 있어서, 盂蘭盆經에서는 ‘十方의 여러 스님네의 위신력을 빌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目連經에서는 ‘부처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㊱ : 非汝一人力所奈何…當十方衆僧威神之力 乃得解脫⁽³¹⁾

㊲ : 師法力微小要此門開無過問佛⁽³²⁾

즉 목련의 어머니를 救하는 데 있어, 우란분경보다 목련경이 훨씬 큰 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救하는 方法에 있어서, 盂蘭盆經에서는 간단히 ‘7月 15日 僧自恣日에 十方의 大德스님네께 供養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目連經에서는

① 如來의 12鐵錫杖과 袈裟와鉢盂로써 阿鼻地獄의 門을 열고

② 世尊의 法力에 의하여 그 어머니가 阿鼻地獄에서 풀려나게 한다. 그렇지만 살았을 때의 罪根이 무거워 小黒闇地獄⁽³³⁾으로 들어간다.

③ 다시 소흑암지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如來의 命에 의하여 모든 보살을 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우게 함으로써 餓鬼道에 태어나게 한다.

(29) 註 18)의 同面.

(30) 註 9)의 第14葉.

(31) 註 18)의 同面.

(32) 註 9)의 第15葉.

(33) 八大地獄 四方의 門에 各各 墜러있는 小地獄 중의 하나이며, 캄캄한 작은 지옥이라 함.

④ 아귀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모든 보살을 청해다가 49燈에 불을 켜고 放生하며 神幡을 만듬으로써 王舍城의 개(畜生)로 태어나게 한다.

⑤ 개의 몸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7月 15日에 盂蘭盆齋를 베풀음으로써 淨土에 태어나게 한다.

⑥ 다시 如來의 앞에 그 어머니가 나아가 五百戒를 받게 하고, 目連의 지극한 孝心이 天母를 감동시킴으로써 忉利天宮에 태어나 快樂을 누리게 한다.

㉑ : 十方衆僧於七月十五日 僧自恣時…供養十方衆僧⁽³⁴⁾

㉒ : ① 佛語目連 汝執我十二鐵錫杖 被我袈裟 掌我鉢盂 至地獄門 前振錫三聲 獄門自開⁽³⁵⁾

② 世尊答言 目連 我救汝母…汝母在生之日 罪根深重 業障未盡 出大地獄 却入小黑闇地獄⁽³⁶⁾

③ 目連即依佛勅 請諸菩薩轉大乘經典 孃得出小黑闇地獄 又生餓鬼中⁽³⁷⁾

④ 目連即依佛勅 請諸菩薩放諸生命 造立神幡點四十九燈 得孃離餓鬼身… 汝母雖離餓鬼 今托生王舍城中 化爲母狗⁽³⁸⁾

⑤ 七月十五日 是衆僧解夏之日 歡喜俱會一處 用拔汝母當生淨土… 造得 盂蘭盆齋 得孃離狗身⁽³⁹⁾

⑥ 對孃於佛前 受五百戒… 感得天母來迎接 生忉利天宮 受諸快樂⁽⁴⁰⁾

이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란분경에서는 7月 15日 僧自恣日에 十方大德僧에게 供養만 하던 곧 餓鬼道에 빠진 어머니를 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方法이 자못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自恣하는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이는 現在의 父母와 七世의 父母와 여섯 가지 친속이 三途의 괴로움을 벗어나 곧 解脫할 것⁽⁴¹⁾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목련경에서

(34) 註 18)의 同面.

(35) 註 32)의 同業.

(36) 註 9)의 第21業.

(37) 註 36)의 同業.

(38) 註 9)의 第22業.

(39) 註 9)의 第23業.

(40) 註 39)의 同業.

(41) 註 18) 同面參照, 「其有供養此等自恣僧者 現在父母七世父母六種親屬 得出三途之苦 應時解

는 그 어머니를 救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즉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忉利天宮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게 하는데에는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있다.

대략 이와 같은 세 가지 方法에 의한 비교에서 우리는 目連顯妣의 所在地에서부터 그 救하는 方法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분에서 目連經이 孟蘭盆經보다 훨씬 복잡한 構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孟蘭盆經과 目連經의 構造⁽⁴²⁾를 全體의으로 比較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孟蘭盆經은 目連이 여섯가지 神通을 얻고, 그 父母를 제도하여 길러준 은혜를 갚고자⁽⁴³⁾하는 부분에서부터 經이 시작된다. 이 부분을 目連經의 構造에서 비교하여 보면 제 5 단계 後尾 및 제 6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孟蘭盆經에서는 餓鬼道에 빠져 있는 어머니를 救하려고 하고 있다. 目連經의 構造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제 8 단계 즉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救하는 方法 중에서 네번째의 方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孟蘭盆經에서는 그 中 後半部가 주로 孟蘭盆齋日에 대한 事項이 詳細하게 記述되어 있고, 또 그 날에 十方大德께 供養함으로써 그 功德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解脫한다고 記錄되어 있다. 이 부분은 目連經에서는 사뭇 간단하게 記述되어 있다. 다만 孟蘭盆齋日을 택하여 개의 몸을 받은 어머니를 淨土에 태어나게 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즉 孟蘭盆經의 中·後半部 全體가 目連經의 構造에서는 目連 어머니의 구제방법에 속하는 제 8 단계 중의 다섯번째 方法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比較하여 본 결과, 孟蘭盆經은 目連經의 構造에 있어서 그 後半部の 根本骨格과 상당히 密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理由에서 인지는 몰라도 閔泳珪 博士께서는 ‘目連經은 孟蘭盆에서 派生·

脫 衣食自然」

(42) 第3章 前半部 參照.

(43) 註 18)의 同面 參照. 「大目連始得六通 俗度父母報乳哺之恩」

發展한 것⁽⁴⁴⁾이라고指摘하고 제신다. 따라서 孟蘭盆經은 目連經 成立의 淵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V. 敦煌變文과 目連經

1899年 敦煌千佛洞의 藏經洞에서 약 2萬個의 卷子本 藏書가 發見되었다. 현재 이 敦煌出土의 變文들은 英國의 「大英博物館」과 佛蘭西의 「國立圖書館」 그리고 中國의 「北平圖書館」 등에 分散 收藏되어 있다. 지금까지 調査된 各變文 중에서 우리의 目連經과 內容을 같이하는 目連變文이 모두 11種쯤 된다. 이 目連變文의 性格에 대하여 閔泳珪 博士께서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물론, 이야기를 엮어가는 登場人物들이며 各種 小道具에 이르기까지 敦煌의 變文과 우리의 「偽經」〔目連經〕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이쪽이 經典의 形式으로 되어있고 저쪽이 變文의 形式으로 남아 있는데서 오는 것 뿐이다.⁽⁴⁵⁾

라 하여, 目連經과 目連變文을 同一視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目連經이 어떻게 해서 敦煌의 變文으로부터 遊星처럼 멀리 떨어져 나와 成立되었는가⁽⁴⁶⁾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筆者는 이점을 重視하여, 目連經이 과연 이와 같이 目連變文의 影響하에서 成立되었다면, 目連變文이 目連經의 成立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本章에서는 이 問題를 조사해 보기 위하여, 目連經과 目連變文을 比較·分析해 보고자 한다.

目連經과 比較의 對象으로 삼은 敦煌變文은 大英博物館藏인 「스타인」 蒐集第2614號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并圖一卷并序’⁽⁴⁷⁾ (以下 變文第1이라 略稱함)와 「귀메」博物館藏인 「페리오」 蒐集 第2193號 ‘目連緣起’⁽⁴⁸⁾ (以下 變文第

(44) 閔泳珪, “目連經과 敦煌變文,” p. 3.

(45) 上揭論文, p. 2.

(46) 上揭論文, p. 3 參考

(47)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并圖一卷并序, 「敦煌變文」(臺北: 國泰文化事業公司, 中華民國 69年(1980)), pp. 714—755.

(48) 目連緣起, 上揭書, pp. 701—713.

2하 略稱함)를 주로 하였다. 그밖에 北平 成字 第69號인 ‘目連變文’⁽⁴⁹⁾(以下 變文第3이라 略稱함)도 비교의 대상에서 일부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變文第1과 變文第2는 그 寫成年紀가 비교적 뚜렷하고 首尾가 完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變文第3은 그 분량은 비록 비좁으나 變文第1,2와 그 내용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 이것을 目連經과 比較함으로써 經과 變文의 比較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다.

1. 目連變文에 의한 目連經 成立時期的 推定

敦煌出土의 目連變文 中에서 變文第1은 그 原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變文의, 마지막에

貞明染年辛巳歲四月十六日 淨土寺學郎薛安後寫⁽⁵⁰⁾

라는 年紀 및 書寫者가 記錄되어 있다. 이 年紀는 後梁 末帝 龍德元年 즉 西紀 921년에 해당된다. 그리고 北京大學藏 敦煌文書 盈字 第76號의 尾段에 太平興國 2年丁丑(西紀 977年)의 年紀를 가지고 있다.⁽⁵¹⁾ 게다가 變文 自體에 宋朝의 時體가 많이 섞여 있어서 五代(907~960)以前의 것은 결코 될 수 없음⁽⁵²⁾을 감안해 보면, 敦煌出土의 目連變文들은 唐 宋 交替期인 西曆 10世紀의 產物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⁵³⁾ 한편 第2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目連經에 관한 사실이 記錄에 나타나기는 高麗史 世家 睿宗元年(1106年) 7月條의 기록이 最初이다.⁽⁵⁴⁾ 이것은 곧 1106年以前에 이미 韓國에서 目連經이 成立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前述한 바와 같이, 目連變文이, 目連經의 成立에 영향을 끼쳤다는 假定下에서 目連經의 成立時기를 推

(49) 目連變文, 前掲書, pp. 756—760.

(50) 註 47)의 p. 744.

(51) 閔泳珪, “月印釋譜 第23殘卷,” 「東方學誌」 第7輯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63), p. 10 參考.

(52) _____, “目連經과…,” p. 3 參照.

(53) 上掲論文, p. 2.

(54) 註 2) 參照.

定해 보면, 目連變文이 書寫된 10世紀에서 目連經이 講義된 12世紀初 사이에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그 時期를 좁혀 본다면, 目連經이 月印釋譜 第23의 素材로 採擇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流傳이 高麗期에 있었음을 쉽게 想像할 수 있기⁽⁵⁵⁾ 때문에, 目連變文이 書寫된 10世紀는 버리고 또 目連經이 講義되고 流布된 12世紀初를 제외하여 보면, 目連經은 11世紀 그 100年 사이에 成立되었다고 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變文과 經典의 比較

먼저 目連變文과 目連經을 比較하는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目連變文의 內容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目連變文中 가장 상세한 變文第1의 內容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羅卜이 父母를 여의고 3年間의 服喪(3周禮)을 마치고 佛弟子가 되어 阿羅漢의 지위를 얻자 道眼으로 慈親의 行方을 찾는다.
- ② 먼저 天宮에 이르러 아버지를 찾아서, 亡父로부터 目連의 亡母가 平生의 罪報로 因하여 地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③ 冥路에서 閻羅大王에게 亡母가 있는 곳을 묻자, 大王은 地藏菩薩 業官 五道將軍에게 차례로 目連 亡母의 所在地를 물어서 그 어머니가 阿鼻地獄에 있음을 알아낸다.
- ④ 目連은 刀山劍樹地獄 銅柱鐵床地獄을 거쳐서 阿鼻地獄에 이른다. 그는 世尊의 寄物인 十二環錫杖으로 阿鼻地獄의 門을 열고, 이 地獄의 第7隔에서 비로소 어머니를 對面한다.
- ⑤ 目連이 世尊께 그 어머니를 救해줄 것을 請하여, 부처의 威力으로 그 어머니가 地獄에서 餓鬼道에 옮겨진다.
- ⑥ 目連은 餓鬼道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王舍城에서 托鉢하여 음식을 보내,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猛火로 변하여 버린다.

(55) 閔泳珪, “目連經과….” p. 3.

- ⑦ 그리하여 目連은 世尊으로부터 教示를 받고, 7月 15일에 孟蘭盆을 廣造하여 그 功德으로 어머니가 餓鬼道에서 畜生道로 옮겨져 王舍城의 黑狗로 태어나게 한다.
- ⑧ 다시 目連은 黑狗를 引導하여, 王舍城의 佛塔前에 나아가 七日七夜에 걸쳐 大乘經典을 讀誦하고 懺悔念戒를 하여 그 功德으로 어머니가 狗皮를 벗어 나무 위에 걸고 女人의 몸을 얻게 한다.
- ⑨ 目連의 어머니는 滅罪修福하여 天女의 迎接을 받으며 忉利天에 나아가 快樂을 누린다.⁽⁵⁶⁾

以上이 變文第 1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目連經과 새 目連變文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登場 地名과 人名

目連變文과 目連經 自體의 序分이라 할 수 있는 첫머리에 登場하는 地名과 人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變文第 1에서는 ‘佛在世時의 目連⁽⁵⁷⁾이 登場할 時 登場 地名에 대한 言及은 없다. 變文第 2에서는 目連의 어머니인 青提夫人이 등장하고, 그 女는 西方에서 살았다⁽⁵⁸⁾고 記錄되어 있다. 또 變文第 3에서는 ‘摩竭國의 大長者 拘離陁’⁽⁵⁹⁾가 登場한다. 여기에 比하여 目連經에서는 ‘王舍城의 長者인 傅相’⁽⁶⁰⁾이 登場한다.

먼저, 登場 地名에 대하여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變文第 1에서는 그 地名에 대한 言及이 없고, 變文第 2에서는 막연히 西方이라고만 하고 있으며, 變文第 3에서는 摩竭[陀]國이라 하여 그 國名이 나타난다. 그런데 目連經에 와서야 비로소 摩竭陀國의 首都인 王舍城을 登場 地名으로 具體的으로 指摘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各各의 變文에서 그 地名에 대한 言及이 없거나 統一을 못보던 것을 目連經에 와서

(56) 註 47) 參考.

(57) 註 47)의 p. 715. 「昔佛在世時 弟子厥號目連」

(58) 註 48)의 p. 701. 「昔有目連慈母 號曰青提夫人 住在西方」

(59) 註 49)의 p. 756. 「昔佛在日 摩竭國中有大長者 名拘離陁」

(60) 註 9)의 第1條. 「昔王舍城中 有一長者 名曰傅相」

정확하게 摩竭陀國의 수도인 王舍城으로 그 地名을 確定·統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이것은 目連의 傳記에 나타나는 地名과 비교적 정확하게 一致한다.⁽⁶¹⁾ 이러한 사항은 곧 各 目連變文의 영향하에서 目連經이 成立되는 과정 중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地名을 記錄하는데 重點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目連經이 目連變文보다 後世에 成立되었다는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실은 前節에서 論述한 目連經 成立時期의 推定에 관한 信憑性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좋은 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登場 人名에 관하여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變文第1에서는 目連이, 變文第2에서는 靑提夫人이, 變文第3에서는 目連의 아버지인 拘鞠陀가 各各 登場한다. 한편 目連經에서는 目連의 아버지인 傅相이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 역시 등장 地名과 같은 論理에서 관찰하여 보면 同一한 理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目連經의 構造에서 그 內容의 軸점이 目連의 아버지→目連의 어머니→目連의 順序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⁶²⁾ 目連經에서 最初의 등장인물을 目連의 아버지로 設定한 것은 지극히 合理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各 變文에서 등장 人名에 대하여 統一을 못보던 것을 目連經에 와서야 비로소 그 統一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登場 地名과 人名에 관하여 比較한 결과 目連變文에서 서로 다른 사항들을 目連經에서 統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目連經이 目連變文의 영향하에서 한걸음 발전된 면모를 갖추어 經典으로 成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目連의 名號

目連變文과 目連經의 主人公인 目連의 名號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1) 註 14)의 本文參照.

(62) 註 6)의 本文參照.

먼저, 出家前의 目連의 이름이 各 變文에서나 目連經에서는 다같이 羅卜으로 記錄되어 있으므로 (63) (64) (65) (66) 이에 대한 異見은 없다.

다음으로 出家後 目連의 名號를 目連經에서는 ‘大目犍連’ (67)으로 改名했다 (68)고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變文第1의 서술부에서는 그 號를 ‘大目乾連’ (68)이라 하였고 그 앞의 계승에서는 ‘大目連’ (70)이라 記錄하고 있다. 또한 變文第2의 서술부에서는 ‘大目連’ (71)이라 하고 그 뒤의 계승에서는 ‘目犍連’ (72)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變文第3에서는 이에 대한 言及조차 없다.

위와 같이 目連變文에서는 같은 變文 안에서 그 서술부와 계승에서 서로 다른 名號를 사용하고 있고, 各各의 變文에서도 그 名號는 서로의 變文을 넘나들면서 세가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變文이 書寫될 당시에도 目連의 名號를 어느 한가지로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目連經에서는 大目犍連 하나만을 그 名號로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各 文章에서 主語使用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發見할 수 있다.

目連經에서는 目連 出家前의 모든 사항에 대한 文章記述에 있어서 그 主語를 모두 ‘羅卜’으로 쓰고 있다. (73) 그리고 改名한 大目犍連을 적은 다음의 문장에서는 그 主語를 모두 ‘目連’이라 쓰고 있다. (74) 여기에 반하여 各 變文에서는 시종일관 모든 主語를 ‘目連’이라 記錄하고 있다. (75)

(63) 註 47)의 p. 714. 「在俗未出家時 名曰羅卜」

(64) 註 48)의 p. 701. 「唯有一兒 小名羅卜」

(65) 註 49)의 p. 75. 「貧道小生 名字號曰羅卜」

(66) 註 9)의 第1葉. 「唯養一子 名曰羅卜」

(67) 이것은 梵音 Mahā-Maudgalyāna의 音譯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湛然是法華文句 卷1 (大正藏經 第34卷 No. 1719)에서 「大目犍連 姓也」라 하였고, 窺基는 法華玄贊 卷1(大正藏經 第35卷 No. 1273)에서 「梵云摩訶沒特伽羅 言大目犍連 訛也」라고 하였으며, 僧肇는 注維摩詰經(大正藏經 第38卷 No. 1775)에서 「姓目犍連 字拘律陀也」라 하였다.

(68) 註 9)의 第7葉. 「世尊摩頂受記 改名大目犍連」

(69) 註 47)의 p. 718. 「投佛出家…號曰大目乾連」

(70) 註 47)의 p. 716. 「佛自稱言我弟一子 號曰神通大目連」

(71) 註 48)의 p. 702. 「便得神通第一 世尊作號 名曰大目連」

(72) 註 71)과 同面. 「神通弟子目犍連」

(73) 註 9)의 第1葉~第7葉.

(74) 註 9)의 第7葉~第23葉.

(75) 註 47) 48) 49) 參考.

위와 같은 目連의 名號나 문장의 主語使用의 문제에 있어서 目連經이 目連變文보다 정확하고 論理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目連經이 目連變文보다 後世에 成立되면서 經典으로서의 完全한 面貌를 갖추었음을 立證해 주는 하나의 例라고 볼 수 있다.

(3) 目連이 訪覓한 地獄

目連이 地獄에 떨어진 그의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訪覓한 여러 地獄이 變文과 經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變文第1에서는 目連이 世尊으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阿鼻地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76) 刀山劍樹地獄과 銅柱鐵床地獄 등을 차례로 訪覓하고 드디어 阿鼻地獄에서 어머니와 相逢한다. (77) 變文第2에서는 目連이 天眼觀占하여 그 어머니가 阿鼻地獄에 있음을 알고, (78) 바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상봉한다. (79)

目連經에서는 目連이 世尊으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地獄에 떨어졌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80) 여러 地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各各의 지옥에 대한 이름과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옥에 떨어지며 또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듣는다. 아울러 그의 어머니가 그 地獄에 있는가를 물어본다. 그리하여 目連은 剝確地獄→劍樹地獄→石磧地獄→灰河地獄→鑊湯地獄→火盆地獄을 거쳐 드디어 阿鼻地獄에서 그 어머니와 相逢한다. (8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變文第2에서는 阿鼻地獄만이 그리고 變文第1에서는 아버지옥을 포함한 네지옥 정도가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비하여 目連經에서는 무려 일곱지옥이나 羅列하면서 각각의 地獄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를 詳述함으로써, 인간의 惡行에 관한 경계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동시에 善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目連經이 變文과는

(76) 註 47)의 p. 714. 「世尊報目連曰 汝母落阿鼻 見受諸苦」

(77) 上揭變文, pp. 726—733 參照.

(78) 註 48)의 p. 702. 「目連…遂乃天眼觀占二親…母身墮在阿鼻 日日唯知受苦」

(79) 上揭變文, p. 704—705 參照.

(80) 註 9)의 第8葉「佛語目連… 汝母…死人地獄中」

(81) 註 9)의 第8—19葉 參照.

달리 하나의 經典으로 成立되면서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는 佛敎의 一理念을 句攝하여 現出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變文에서 言及한 地獄과 그 性格을 달리하는 餘他の 地獄은 어떤 文獻에 依據하여 目連經에 記述되었을까? 餘他の 地獄中에서 灰河地獄과 鑊湯地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長阿含經 및 俱舍論 等에는 八大熱地獄⁽⁸²⁾과 八大寒地獄⁽⁸³⁾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八大熱地獄들의 4門밖에는 各各 卅개의 小地獄이 있어, 하나의 大地獄마다 16개의 小地獄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小地獄을 일컬어 十六遊增地獄이라 한다. 灰河地獄은 바로 이 十六遊增地獄中の 하나인 것이다.⁽⁸⁴⁾ 그리고 鑊湯地獄은 가마솥의 끓는 쇳물에 罪人을 삶는 地獄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觀佛三昧海經에 자세히 記述되어 있다.⁽⁸⁵⁾

이와 같이 目連이 地獄에 떨어진 그의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訪覓한 地獄을 살펴본 결과, 變文에서는 言及되지 않고 目連經에만 나타나는 餘他の 地獄은 目連經이 經典으로 成立될 때 長阿含經 俱舍論 觀佛三昧海經 等 여러 經論들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 追加記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目連經이 變文에만 依存하지 않고, 이와 관계되는 餘他の 經論들을 참고하여 그 內容을 追加함으로써 變文보다 한걸음 더 發展된 단계에서 成立된 經典임을 立證해 주는 좋은 例가 된다고 볼 수 있다.

(4) 目連 亡母의 薦度過程

目連이 阿鼻地獄에서 呻吟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薦度하는 過程에 대하여 變文과 經典에서 어떠한 差異點을 지니고 있는가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變文第1에서는 目連의 어머니를

① 如來가 放光動地하여 地獄의 苦處에서 救해 준다.⁽⁸⁶⁾

(82) ① 等活(또는 想) ② 黑繩 ③ 衆合(또는 堆壓) ④ 號叫(一名 叫喚) ⑤ 大叫 ⑥ 炎熱(一名 燒炎) ⑦ 大熱 ⑧ 無間(또는 阿鼻) 地獄

(83) 長阿含經에는 그 가지수가 열가지나 되나 俱舍論 大毘婆沙論 大智度論 瑜伽師地論 등에는 여덟가지가 言及되고 있다.

(84) 長阿含經 第19 地獄品 (大正藏經 第1卷 No.1.) 및 俱舍論 卷第8, 11 (大正藏經 第29卷, No. 1558)等 參考.

(85) 觀佛三昧海經 卷5 (大正藏經 第15卷, No. 643.) 參照.

- ② 그러나 그 어머니는 罪根이 깊어 地獄은 면하였으나, 다시 餓鬼道에 떨어진다.⁽⁸⁷⁾
- ③ 目連은 7月 15日 世尊의 明敎를 받들어 王舍城 주변의 塔前에서 大乘經典을 외우고 盂蘭盆齋를 베풀어, 그 功德으로 어머니가 餓鬼의 몸을 벗어나 王舍城의 黑狗로 몸이 바뀌어 진다.⁽⁸⁸⁾
- ④ 目連은 개의 몸을 받은 어머니를 引導하여 王舍城의 佛塔前에 나아가 七日七夜에 걸쳐 大乘經典을 외우고 懺悔念戒하여, 그 功德으로 하여금 어머니가 女人의 몸을 얻게 한다.⁽⁸⁹⁾
- ⑤ 目連이 어머니를 모시고 佛前에 나아가자, 世尊이 어머니의 罪를 滅하여 준다. 이에 그 어머니는 天女의 迎接을 받으며 初利天에 올라가 快樂을 누린다.⁽⁹⁰⁾

이에 比하여 變文第 2에서는

- ① 目連이 7月 15日에 香花供養 및 盂蘭盆齋를 베풀어 그 어머니가 阿鼻地獄을 떠나게 한다.⁽⁹¹⁾
- ② 하지만 그 어머니는 王(舍)城의 개로 변하여 고통을 받는다.⁽⁹²⁾
- ③ 目連은 世尊의 敎示에 의하여, 祇園精舍에 나아가 僧侶(四十)九人을 請하 7日 동안 道場을 鋪設하고 禮懺하며 神幡을 매달고 點燈 및 放生하고 大乘經典을 외워 虔誠으로써 諸佛께 請한다. 그리하여 그 어머니는 天上에 태어난다.⁽⁹³⁾

이러한 變文들의 眞道 과정에 比하여, 目連經에서는 目連이 世尊께 그 어

(86) 註 47)의 p. 738. 「如來…放光動地 救地獄之苦處」

(87) 上揭變文, p. 739. 「目連…得見慈母 罪根深結業力難排 雖免地獄之礙 隨在餓鬼之道」

(88) 上揭變文, p. 743. 「一年之中 七月十五日…目連承佛明敎 便向王舍城邊塔廟之前 轉讀大乘經典 廣造盂蘭盆普根…得汝轉經功德 造盂蘭盆普根 汝母轉餓身之鬼 向王舍城中作黑狗身去」

(89) 上揭變文, p. 744. 「目連引得阿娘於王舍城中佛塔之前 七日七夜 轉讀大乘經典 懺悔念戒 阿娘乘此功德 轉却狗身 退却狗皮 掛於樹上 還得女人身 全具人狀圓滿」

(90) 上揭變文, 同面. 「目連將母於娑羅雙樹下 燃佛三匝 却在一面…更率私人之罪 目連見母罪滅…亦得天女來迎接 一往迎前初利天受快樂」

(91) 註 48)의 pp. 708—709. 「汝至衆僧解憂之曰…辨香花之供養 置盂蘭之妙盆…諸佛慈悲 便賜方圓救濟 目連慈母 得離阿鼻地獄」

(92) 上揭變文, p. 709. 「於是目連天眼 觀見慈母…將身又向王城化作狗身受苦」

(93) 上揭變文, p. 710. 「當往祇園之內 請僧侶(四十)九人 七日鋪設道場 日夜六時禮懺 懺悔點燈 行道放生 轉念大乘 請諸佛以虔誠 目連依教奉行 便置道場供養 虔心聖主 願救慈親 蒙我佛之威光 母必離於地獄 生於天上」

머니를 救해 줄 것을 請하자

- ① 世尊은 肩間에서 五色毫光을 내어 그 빛으로 地獄을 깨뜨리자, 열라대 왕이 감동하여 죄인을 놓아 모두 하늘에 다시 가게 한다.⁽⁹⁴⁾
- ② 그리하여 그 어머니는 大地獄에서 나왔으나 생전의 罪根이 무겁고 깊어 다시 小黒閻地獄으로 들어간다.⁽⁹⁵⁾
- ③ 目連은 諸菩薩을 請해다가 大乘經典을 의뢰서, 그 어머니가 餓鬼界에 태어나게 한다.⁽⁹⁶⁾
- ④ 目連은 다시 모든 菩薩을 청하여 四十九燈을 켜고 放生하며 神幡⁽⁹⁷⁾을 만들어, 그 어머니가 餓鬼의 몸을 떠나 王舍城의 어미개로 태어나게 한다.⁽⁹⁸⁾
- ⑤ 目連은 또 7月 보름날을 가려서 盂蘭盆齋를 베풀어,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떠나게 하여 다시 淨土(여기서는 人間界를 가르키는 듯하다)에 가게 한다.⁽⁹⁹⁾
- ⑥ 目連은 어머니가 世尊 앞에 나가서 五百戒를 받게 한다. 이러한 目連의 孝心이 天母를 감동시킴으로써 그녀가 어머니를 迎接해다가 忉利天宮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快樂을 누리게 한다.⁽¹⁰⁰⁾

위와 같은 目連 어머니의 竊도과정에 대한 變文과 經典의 內容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目連이 그 어머니를 竊도하는 과정이 變文第 1에서는 5단계이고 變文第 2에서는 3단계이며 目連經에서는 6단계로써, 變文第 2보다는 變文第 1이 그리고 變文第 1보다는 目連經에서 그 竊도과정이 具體化되어 간다. 즉 變文第 2의 ①과 ② 사이의 과정이 變文第 1의 ②로 나타나고, 다시 變文第

(94) 註 9)의 第21葉, 「世尊…放肩間五色毫光 照破地獄…閻羅大王…勅半頭獄卒 盡皆放生天」

(95) 註 9)의 第21葉, 「汝母在生之日 罪根深重 業障未盡 出大地獄 却入小黒閻地獄」

(96) 註 95)의 同葉, 「目連即依佛勸 請諸菩薩 轉大乘經典 獲得出黑閻地獄 又生餓鬼中」

(97) 幢幡과 같은 말로써 佛殿을 壯嚴하게 하는데 쓰이는 휘장임.

(98) 註 9)의 第22葉, 「目連…請諸菩薩 放諸生命 造立神幡 點四十九燈 得離餓鬼身」 「汝母雖離 餓鬼 今托生王舍城中 化爲母狗」

(99) 註 9)의 第22-23葉, 「世尊答言 目連 但取七月半日 造取盂蘭盆齋 得離餓狗身」 「七月十五日 是衆僧解夏之日 歡喜俱會一處 用拔汝母 當生淨土」

(100) 註 9)의 第23葉, 「對藥於佛前 受五百戒…感得天母來迎接 得樂生忉利天宮 受諸快樂」

1의 ①과 ② 사이의 과정이 目連經의 ②에서 具體的으로 記述되어 있다. 또 變文第2의 ②와 ③ 사이의 과정이 變文第1의 ④ 및 目連經의 ⑤에서 各各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變文第1의 ⑤가 目連經에서는 ⑤와 ⑥으로 分化되어 記述되고 있다. 이것을 다시 六道⁽¹⁰¹⁾輪廻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變文第2에서는 目連의 어머니가 地獄에서 餓鬼界를 뛰어넘어 畜生界에 태어나는 飛躍이 따른다. 또 畜生界에서 天上界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變文第1에서도 目連 어머니가 八大熱地獄의 가장 밑바닥인 阿鼻地獄에서 그 小地獄이나 다른 地獄을 거치지 않고 餓鬼道에 태어나는 과정에는 無理가 있다. 여기에 반하여 目連經에서는 阿鼻地獄에서 小地獄인 小黑闇地獄을 거쳐 餓鬼道로, 또 畜生 → 人 → 天上의 順序로 끌어올리는 그 救出段階가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順理의 입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目連 어머니의 친도과정에 관한 變文의 內容에 몇개의 과정이 첨가되고 또 分化되면서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完成됨으로써 目連經이 成立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 또한 目連經이 變文보다 한걸음 發展한 단계에서 經典으로서의 面貌를 갖추어 成立되었음을 立證해 주는 또 하나의 좋은 例라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敦煌出土의 目連變文과 目連經을 比較하여 본 結果

첫째, 目連經은 11世紀 그 100年 사이에 韓國에서 成立되었음을 推定할 수 있었다.

둘째, 變文에서 統一하지 못하였던 登場 地名·人名의 設定에 대한 문제를 目連經에서 統一시켜 나타냄으로써, 目連經이 變文보다 合理的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目連의 名號나 文章의 主語使用 문제에 있어서 目連經이 變文보다 正確하고 論理的임을 究明하였다. 故로 目連經은 變文보다 한걸음 發展한 단계에서 經典으로 成立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넷째, 目連이 訪覓한 여러 地獄을 살펴본 結果, 目連經은 變文에만 依存

(101) 地獄 餓鬼 畜生 修羅 人間 天上의 六界를 일컫음.

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고 長阿含經 俱舍論 觀佛三昧海經 等 餘他の 經論들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立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는 佛敎의 理念 중의 하나를 句攝·現出시킴으로써 經典으로서의 完全한 面貌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目連이 그의 어머니를 薦度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본 결과, 變文보다는 經典에서 더욱 具體化됨으로써, 目連經이 變文보다 順理의임을 究明하였다. 뿐만 아니라 目連經에는 몇개의 과정이 첨가되거나 分化됨으로써 目連經이 變文보다는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目連經은 11世紀頃 變文보다 한걸음 發展한 단계에서 經典으로서의 完全한 面貌를 갖추면서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成立된 「韓國의 僞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結 論

以上과 같이 目連經의 成立經緯를 考究하기 위하여, 本考에서는 目連의 傳記 및 孟蘭盆經과 敦煌出土의 目連變文을 目連經과 比較하여 보았다. 그 結果 目連經의 成立經緯를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었다.

첫째, 阿舍部の 諸經典 등에 나타나는 目連의 傳記 그리고 目連經의 構造를 目連經과 比較하여, 目連經이 하나의 經典으로 成立된 淵源은 神足第一이라 불리는 目連尊者의 神通力이 內在된 目連의 傳記에서 着想·胎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目連經에서 目連이 現世와 天上 그리고 地獄을 두루 드나들수 있는 神通力의 根據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둘째, 孟蘭盆經과 目連經을 比較하여, 目連經 後半部の 根本骨格이 孟蘭盆經과 상당히 密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構造面에 있어서는 目連經이 孟蘭盆經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目連經은 孟蘭盆經에서 派生·發展하였음을 立證할 수 있었다.

셋째, 敦煌出土의 目連變文과 目連經의 內容을 比較하여 보았다. 그 結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目連經의 成立時期는 11世紀頃임을 推定할 수 있었다.

② 變文에서는 統一하지 못하였던 登場 地名 및 人名이 目連經에서는 具體적으로 나타나고, 目連의 名號 및 文章의 主語使用 있어서 目連經이 變文보다 正確하고 論理的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目連經이 變文보다 한걸음 發展한 단계에서 經典으로 成立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目連이 訪覓한 여러 地獄을 比較함으로써, 目連經에서는 단순히 變文에 단 依存하지 않고 長阿含經 俱舍論 觀佛三昧海經 等 餘他의 經論들로부터도 影響을 받아 追加되었음을 立證하였다. 또 거기에는 佛敎의 理念을 句攝·現出시켜 經典으로서의 完全한 面貌를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④ 目連이 어머니를 薦度하는 과정을 比較함으로써, 目連經이 變文보다 더욱 具體적이고 順理의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目連經에는 몇가지의 과정이 더 첨가되거나 分化됨으로써 目連經은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佛說大目連經」은 阿含部의 諸經典에 收錄된 目連의 傳記에서 着想·胎動하여, 盂蘭盆經에서 派生·發展하였으며, 敦煌出土의 目連變文類로부터 상당한 影響을 받아 韓國에서 11世紀에 成立된 經典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目連經은 目連變文들을 受容함과 동시에 長阿含經 俱舍論 觀佛三昧海經 等 餘他의 經論들로부터도 影響을 받아, 敦煌出土의 目連變文보다 一한걸음 發展한 단계에서 合理的이고도 論理的으로 完成됨으로써 完全한 面貌를 갖춘 經典으로 成立된 「韓國의 僞經」임에 틀림이 없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n the Completion circumstance of Monglyun Kyung (目連經)

Kim, Sŏng-Soo*

〈Abstract〉

In the study of the Sutras in our country. We can seek important not only the study of real-Sutras, but the study of counterfeit-Sutras.

This study examines into the completion circumstance of Monglyun Kyung.

Therefore, Following items were discussed.

① Monglyun Kyung was conceived by the idea of Monglyun's biography.

② Monglyun Kyung was derived and developed by Ulanboon Kyung (孟蘭盆經)

③ Monglyun Kyung was effected by Donhwang Byunmoon's(敦煌變文) Monglyun Byunmoon(目連變文), and Completed about the eleventh century in Korea.

But it was not the simple imitation of Byunmoon.

Thereby it was completed, undergo various influence, by other the Sutras and the theses.

As a result, Monglyun Kyung was disclosed as excellent Korea's forge the Sutras. For it had excellent aspect like the Sutras.

*Instructor, Kyungpook University.